연중 제16주일(7월 21일)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0-34)

사도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손짓으로 말하고 있다. "너희는 좀 쉬어라.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좀 쉬라고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색인 흰옷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좀 쉬어라."

작가 제임스 티소트 | 1886-1894년, 수채화, 17.9x24.8cm,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은총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펴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향한다 하여도 하느님께 받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혹사시키는 것을 하느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마르 6,34)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은 자기의 업적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보니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재물 혹은 권력이 우리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보여서 그 욕심을 좇다가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입신출세하고, 많은 것을 얻어 누리고 싶은 욕심은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여 매진하면서, 비굴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웃을 위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측은히 여기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자기 한 사람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속물근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참다운 자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하느님의 질서, 곧 하느님의 진리를 다시 살게 해 줍니다.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은혜로운 사람이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해 줌을 기억합시다.

나의 이기심과 온갖 욕심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고 측은지심에 따라 지혜롭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은 그만큼 자유롭고 평화로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 한다면 힘만 들고 돌아오는 것은 상처 난 자기만족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함께 사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마음 안에 내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위한 자리도 하나 마련해 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하느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될 것이며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참된 휴식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56번 "목자를 따라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